

● 巡 訪 ●

# 韓國外換銀行圖書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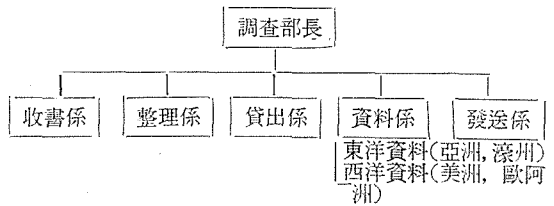
어떤 意味에서는 우리 나라와 같이 아직 公共圖書館의 開發이 未備한 나라에서는 오히려 特殊圖書館의 開發이 圖書館 發展의 契機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대개의 地域社會 住民이 生活의 手段을 따라 하나의 集團體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集團體에서 大部分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실상 그들이 利用할 수 있는 公共圖書館은 특수한 경우에 생긴 여가 아니고는 거의 利用이 어렵기 때문에 이 集團體의 圖書館, 즉 特殊圖書館의 設立(設置)은 필요하다고도 하겠다. 따라서 여기서 圖書館 利用法, 資料의 索出方法 등을 익히게 하고 地域社會의 住民을 公共圖書館으로 誘導하는 바람직한 方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集團體에 있어서의 運營者들이 圖書館(室)의 設置를 浪費라고 보는 짧은 眼目 때문에 아직 우리 나라의 特殊圖書館은 公共圖書館과 더불어 館種 중 가장 未開發 狀態에 있는 것이 事實인 것 같다.

그러나 一部에서는 時代가 急進의으로 變遷함에 따라 企業이 多樣化되고 企業의 成廢가 情報獲得 여하에 달려있을만큼 企業의 生理가 科學化되어 감으로써 事業에 必要한 情報獲得을 위해서 圖書館에 대한 機能을 活用하려는 생각이 漸增되어서 自機關內에 圖書館 施設을 가지려는 意慾이 增加되어 가고 있음은 다행한 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氣運에 따라 各樣各種의 企業體 혹은 機關에서 圖書館을 設置하여 111個處의 特殊圖書館이 우리 나라에는 생기게 되었다. 이에 本 巡訪者는 模範的으로 運營되고 있는 韓國外換銀行 圖書室을 訪問하고 여기에 소개하는 것이다.

韓國外換銀行 圖書室은 1967年 8월에 開館을 하여 아직 두 년도 못된 圖書室인 까닭에 선지 우선 新鮮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歷史가 얇은 館書室이란 점에서 藏書量이라든지 기타의 外形의 規模에 대해서 期待하지 않았지만 50坪 남짓한 비좁은 面積에 다 10,000餘卷에 達하는 國內外 新刊 圖書와 1,270種의 國內外 定期刊行物 및 其他 情報資料들을 備置하여서 年輪에 비해 滿足할 만한 奉仕活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였다. 물론 銀行業務의 性格이 金融, 通貨, 貿易, 商業, 市場, 競氣 등 기타 모든 分野의 情報를 廣範圍하게 要求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要求를 充足시키려는 노력이 兪보이게 하는 發展的인 도서관이라고 생각 되었다.

특히 當 圖書室이 銀行事務의 機械化에 발을 맞추어 圖書館 業務를 機械化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圖書館 業務를 機械化하는 試圖的 作業의 最初의 圖書館이란 점에서 우리의 關心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圖書室에서는 카아드 目錄의 自動化를 위해 IBM(International Business Mashine) 카아드를 使用하고 있으며, American Economic Associat-

ion의 經濟文獻 分類體系에 따라 隔月刊으로 定期刊行物 記事索引과 DDC分類 카아드 目錄을 孔版印刷로 發刊하고 있으며, 앞으로 Punch-Card (IBM)에 의한 目錄 간소화를 우선 試圖할 豫定이라고 한다. 또 이 圖書室에서는 外換銀行의 東京支店과 뉴욕支店을 통하여 海外 新刊圖書를 收書하고 있으며 國內刊行物에 관해서도 年 3,000餘卷을 購入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金融 關係 海外 定期刊行物 資料는 아시아 地域으로부터 240種, 歐阿洲로부터 260種, 濠州 140種, 美洲340種, 國際機構 120種 등을 포함하여 1,270種에 달함으로써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삼아 이 圖書室이 이토록 많은 定期刊行物을 계대로 分類하고 또 처리하고 있는 分類法을 살펴보면 앞에서도 지적한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의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 for Current Economic Journal>이다. 그리고 또한 이 圖書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중의 하나는 지극히 단순하고 直線的인 組織이라고 하겠는데 이 圖書室의 Organization Chart를 보면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본래는 Staff이지만 line 이나 별다른 없이 上下가 잘 연결되어 있다.

또 藏書構成에 있어서도 많은 숫자의 最新 定期刊行物들을 海外支店을 통하여 즉시로 收書함으로써 up-to-date를 生命으로 하고 있는 定期刊行物을 계 때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特殊圖書館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全的으로 專門書籍만으로 藏書를 구성하고 거의 敎養圖書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本來圖書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무엇인가 차질을 주고 있는 것 같았다. 담당자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금년중으로 最新 敎養書籍들을 상당량 구입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이 圖書館이 가진 문제점은 Back-Number의 처리이다. 1,000種이 훨씬 넘는 定期刊行物들은 最新號도 중요하지만 Back-Number가 지극히 중요하고 급히 필요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圖書館에서는 이 Back-Number의 처리가 整理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인데, 앞에서 말한대로 Automation 化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비좁은 스페이스에서 Back-Number를 活用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하나는 圖書館室이 本店에 있지 않고 支店에 設置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利用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外換銀行圖書室은 圖書館 業務를 機械化하는 作業을 試圖하고 있어서 우리들의 관심을 모으게 하고 있다. (李相吉)